

봄이다...그림구경으로 마음공부

■성륜스님 그림전

30일까지 서호갤러리

수행의 지향점인 '무심'의 경지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성륜스님이 그 경지를 화폭에 담았다. '무심세계'를 주제로 하는 성륜스님의 그림전이 21일부터 30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서호에서 열린다.

97년 '봄추는 달마' 이후 2년만에 갖는 개인전에서 성륜스님은 한지와 혼합재료들로 표현한 '무심'의 자리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 작품들에서 특별한 테마를 찾고 싶지 않았고 노력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수행자의 마음자리를 엿보는 기회로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02)720-7311

■수증스님 첫 개인전

21~27일 공평아트센터

10여년 동안 연꽃 그리기에 매진해 온 수증스님(금화사 주지·사진)이 첫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21일부터 27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전시회의 주제는 '일지하엽수련전(一池荷葉修蓮展)'이다. 하나의 연꽃에 피어난 연꽃을 수행의 거울로 삼는다는 의미. 최근 3년여 동안 연꽃을 소재로 그린 작품들은 한지에 수묵담채를 기본으로 삼으면서 아크릴, 금분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출가 전부터 연꽃 문양에 관심이 많았다"는 스님은 "연꽃이 갖는 의미를 그림으로 전하고 싶어 연꽃만 그려 왔다"고 밝혔다. 스님은 포교의 방편으로 10여년 동안 500여명에게 연꽃 그림을 보시하기도 했다. (02)429-1488

■지상스님 서각전

12일부터 경주 기림사

서각삼매로 수행을 삼는 지상스님(동림사주지)이 경주 기림사 초청으로 장기간 서각전을 연다. 12일부터 3개월간 기림사 진남루에서 열리는 서각전은 스님의 최근작 40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서각예술의 종자인 경관의 제작과정도 이해할 수 있다. 경관의 제작공정을 일곱 가지의 과정으로 나눠 전시된다. (0561)44-2292

■임호씨 개인전

5월9일까지 선화랑

인사동 선화랑이 주관하는 선미술상을 수상한 임호씨가 수상기념 개인전을 연다.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선화랑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임호씨가

고안해 낸 '우리 효'의 절정을 만날 수 있다.

그의 '우리 효'란 닥종이로 만든 바탕지에 먹칠하고 그 위에 종이죽을 덮어 먹물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 하는 방법, 붓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닥종이 바탕과 먹, 물이 어울려 우려져 나오는 먹의 효과다.

집접산중의 절. 그 속의 수행승이 이 우려낸 효과를 통해 화폭에 그윽히 묘사되고 있는 모습은 붓질의 한계를 뛰어 넘은 작가의 역량을 보여 준다. (02)664-6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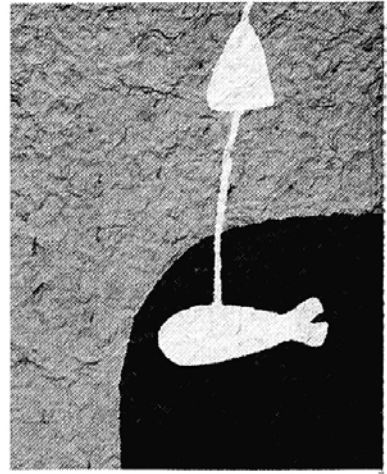
■김영선씨 수묵전

14~21일 갤러리 상

고향과 어린 시절, 어른들의 마

음자리를 가득 채우는 향수를 더욱 부채질하는 동화적 소재들. 이를테면 달나라의 토끼라든지 쟁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풍경이 있어 더욱 그리운 고향의 어린 시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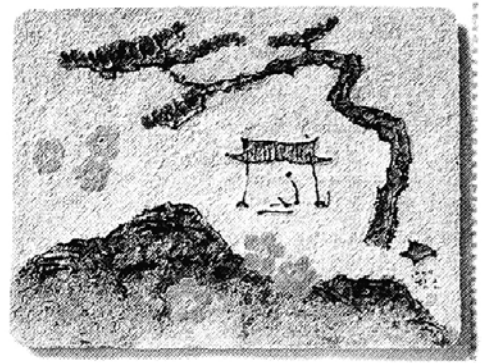
김영선씨가 모시베나 장지에 수묵으로 표현한 아련한 고향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輪-지금 우리는...(共生)'. 김씨는 다소 서술적인 테마를 내 걸고 14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으로 인사동 갤러리 상에서 전시회를 연다. 김씨의 작품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때 그 속에 살해진 운회와 인연의 가르침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평자들의 견해다. (02)730-0030



◇성륜스님의 '무심세계'.



◇수증스님의 '연꽃'.



◇임호씨의 '산사'.



◇30일부터 공연될 연극 '등신불'의 연습장면.

소설 '등신불' 연극무대에

인천시립극단 공연-연출 이승규씨
30일~5월9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김동리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등신불'이 연극 무대에 오른다.

인천시립극단이 30일부터 5월9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연할 등신불은 김동리의 원작소설을 구희서(한국연극평론가협회장)씨가 희곡으로 꾸민 것. 연출은 이승규씨가 맡는다.

소설 '등신불'이 연극으로 공연되기는 이번이 처음. 작품의 줄거리는 자신의 친아들을 위해 전처의 아들 사신을 죽이려는 어머니의 죄를 씻고자 스님이 된 아들이 자신과 어머니의 죄를 갖고 회노애락의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 몸을 태워 부처님에게 공양함(燒身共養)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스님이 된 아들 만적이 소신공양을 하려는 순간 비가 내려 소신의 뜻은 이루지 못하지만 그 공덕으로 문둥병 환자인 사신과 주변의 환자들이 병을 낫게 된다.

이번 무대는 영상매체를 이용한 무대장치(세트)를 사용할 계획이다. 수작업으로 만든 세트가 지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극단측은 6개의 환동기를 통해 입체적인 무대장치를 선보일 생각이다.

작품속에 등장하는 영상매체 불교의식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기 위해 능화스님(인천 구양사주지)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음악은 국립국악원 상임지휘자 김철호씨가, 남사당 놀이지도에는 남사당연희 이수자 남기문씨가 동참한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opia.com)



◇백제 초기 도읍이었던 한성 인근의 '신복선사' 터로 추정되는 하남시 금암산의 절터. 13곳의 절터를 확인한 세종대 조사팀은 금암산 절터를 경주 남산에 비유하는 백제성지로 보고 있다.

"백제 신복선사 절터 찾았다"

세종대 하남시 유적조사 와당·석축등 발견

경기도 하남시가 백제 초기 도읍이었던 '한성'일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 하남시가 98년 5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표조사에서 백제 고찰 신복선사로 추정되는 절터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 조사를 맡은 세종대학교 박물관(관장 최정필)에 따르면 하남시 금암산에서 5백~6백여평 규모의 절터를

새롭게 찾아냈다는 것. 또 절터에 흩어진 유물 가운데 석축과 '신복골'이라는 지명에 근거, <동국여지승람>에서 한성 근교에 소재하였다고 기록한 신복선사로 추정되는 절터가 추가로 발견됐다.

황보학예연구원(세종대 박물관)은 '96년 이후로 금암산 지역에서 무려 13군데의 절터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남시는 경주



◇백제 초기 도읍이었던 한성 인근의 '신복선사' 터로 추정되는 하남시 금암산의 절터. 13곳의 절터를 확인한 세종대 조사팀은 금암산 절터를 경주 남산에 비유하는 백제성지로 보고 있다.

남산에 필적할 만한 초기 백제의 불교성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간 하남시 일대에서 출토된 와당 명문 등을 통해 이름이 확인된 사지는 모두 5곳. 자화사지, 천왕사지, 약정사지, 동사지, 신복선사지 등이다.

이번 지표조사는 5월 25일까지 계속되며, 하남시는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 하남시 유적 발굴을 추진 계획이다. 문화재관리국은 올해 하남시유적발굴 보조비로 1억원을 책정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인각사 사역확인 시굴조사 보고서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 시굴조사 결과 토목편, 철제 수인편, 철제 불수(佛手), 청동발우, 연화문 수막새, 귀면와 등이 출토됐다.

중앙승가대 발굴조사단(단장 홍선스님)은 최근 1998년 2월부터 4월까지 인각사를 시굴조사한 결과보고서에서 인각사의 사역을 남북 최대 약 150m, 동서 180m 규모의 경지가림으로 추정하고 각종 출토품을 공개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고대 교통로인 사역의 남쪽 산록이거나 위수천변으로 추정된 조사단은 인각사의 사역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말까지 유지되다가 조선시대부터 급격하게 축소되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위원 김상영교수(중앙승가대)는 "이번 시굴조사에서 인각사 전역의 유구방향보다 서쪽으로 치우친 현상을 보이는 미륵당 주변의 건물지가 독립된 공간으로 존속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새롭게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o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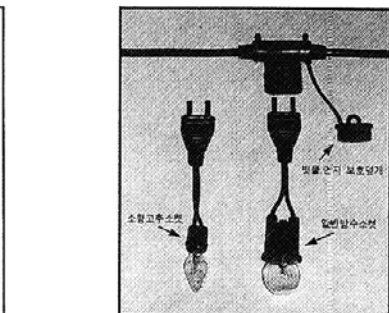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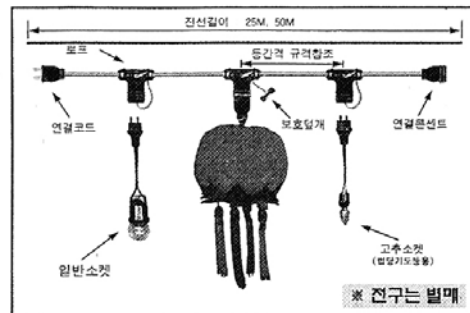
16일 덕수궁에서 영산재 재현

덕수궁에서 영산재가 재현된다. 박희덕씨 외 26명이 참여해 재현하는 영산재는 16일 7시30분 덕수궁 중화전에서 봉행된다. 10일부터 5월9일까지 한달동안 저녁9시까지 야간개장하는 덕수궁 한미당문화축제의 일환이다.

18일에는 한국전통문화연구원 25명이 펼치는 처용무, 5월4일에는 명원문화재단이 준비한 전통다례와 차시음의 장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서울미래니컬컴백의 패션쇼를 비롯하여 대금 및 가야금 등 전통악기 연주회, 기타 소규모 음악·예술 공연행사 등이 덕수궁 휴관일(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개최된다.

김지연 기자

물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 사찰·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사찰·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납품)



- 규격**
- 등간격 : 30cm, 50cm
 -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추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대원기업 代表 吳大權(光明) 合掌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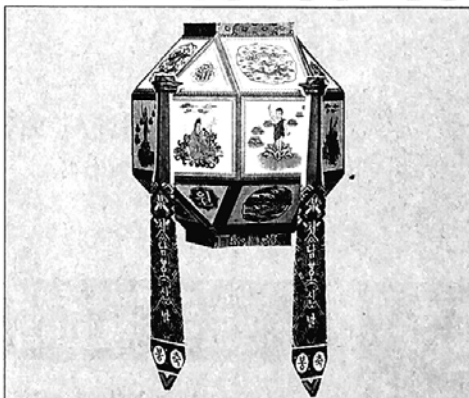
서울영업부 :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 017-259-4471

부산·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폰 : 011-833-8018

영·호남지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 (0591)757-3626 휴대폰 : 011-869-4854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인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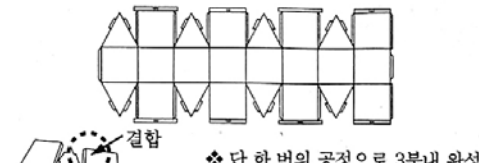


◇ 조별용(8cm, 10cm) ◇ 조별용위에 연안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납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 팔관회의 고승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야외장엄용
「복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변화된 유동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